

부활 제 6 주일

기도서 P 300 A해

제1독서(사 도 8,5-8,14-17)
제2독서(베드 전 3, 15-18)
복 음(요 한 14, 15-21)

숲 정 이

발 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강론



자연이 은총이라면?

박 창 신 신부

지난 겨울에 있었던 여성 꾸르실로 기간에, 글로는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던 시골 본당 아주머니께서 강의 요약 중에 "자연이 은총이라면 나는 정성껏 가꾸겠다"고 표현했다 한다. 그녀는 농부의 아내이다. 성령 강림을 앞두고 교회 모든 공동체는 이 촌부(村婦)의 말을 깊이 묵상해야겠다.

예수님은 수난 직전에 협조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요한 14, 16) 하시므로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과 당신을 항상 함께 계시고 협조자(성령)를 보내시어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된 이 성령은 예수 부활후 즉시(요한전통), 혹은 오순절(루카전통)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오셨다. 이 성령은 신앙의 공동체에 불을 질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교회가 겨울에 억매이면서 성령의 일을 잃은 공동체가 되므로, 영적 이기주의인 개인구원과 죄만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공동체를 탈락해 버렸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요즘 교회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성서를 읽으며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성령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는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새 바람과 함께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늘님은 역사(歷史)의 하느님이란 것이다. 역사의 하느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전 인간역사의 사건들 안에서 활동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져 주셨던 성령도 인간 역사안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활동하신다. 물론 성령은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은총의 선물로 공동체 안에서 능동적으로 봉사케 한다.

구약에 영은 그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하셨다. 요즘 교회안에 불기 시작한 성령의 활동을 2천년전 초대교회의 여러가지 현상들 중에서 조그마한 현상만을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사건과 일상생활 안에서 성령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겠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 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 그 중에 몰아적인 사랑을 수행하는 부모님들, 남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안에 성령이 힘차게 작용하실을 알자. 더욱이 이 자연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촌부(村婦)처럼! 그리고 영에 사로잡혀 올바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했던 연인자 처럼 이 순간 순간에 활동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듣자.

신약은 분명히 성령의 시대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성령을 얼마나 체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산 주임신부>



좀 앙그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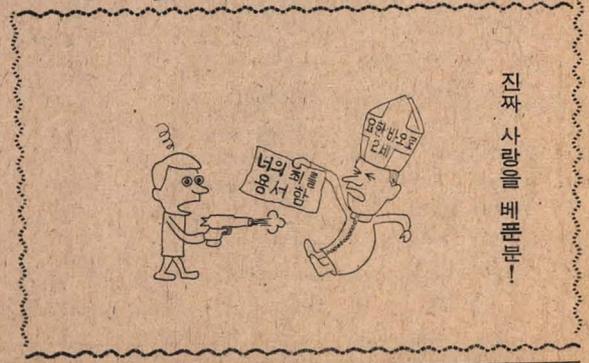
만원된 시내버스, 그것도 막차를 타면 가끔은 짜증 섞인 질타이를 볼 수 있다. 하루의 피곤을 한 잔으로 달랠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바람에 안내양의 소리가 높다. "앗따 좀 앙그쇼." 정류장을 알리던 목소리가 갑자기 순수한 사투리로 바뀐다. 비교적 표준말에 가깝던 안내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월색적인 자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속일 수 없는 자기 표현인 것이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간다. 참으로 훌륭한 양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기를 감추며 살아 가기도 한다. 늑대의 얼굴은 감추고 양의 말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다. 특히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주 볼 수 있다. 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추어 들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는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비록 이를 모른다 해도, 우리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취중에 터져 나오는 진담이 그렇고, 꿈결에나 마취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감추어진 것의 들어남도 그렇다. 감추어진 말들은 양말을 뚫고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감추는 데 진력하기 보다는 감추어야 할 잘못을 가다듬어야 한다.

일전에 한국을 다녀간, 소위 현대의 살아있는 성녀라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기억한다. 주굴 주굴한 손등에서 부터 나타나는 평안함을 우리는 보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각박한 오늘에 조금이라도 위안과 평화를 얻고자 물려든 군중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얼마나 오랜 인고(忍苦)와 수련의 결정이었던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결실임을 알아야 한다. 감추기 보다는 잘고 닦는데 힘쓰자.

숲 정 이 산책



진짜 사람을 베푸는!

“뒤편과 뒤편로우, 입과 입으 로우, 마음과 마음으로—”

—Aggiornamento를 마치고—

이 순 성 신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미쓰 「니포레다」의 말이다. 하도 우스운 그녀의 발음 덕분에 적어도 며칠간 우리의 혀조차 꼬부라졌었다.

3주간의 사제생활세신 집중교육은 급제한 우리의 중환을 찌르는 세치대침 이었다. 평소 한장 한장 모았으나 푸석 먼지나도록 쌓아두기만 했던 생활 원고들을 간결하고 산뜻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일깨워준 기분이이다.

통틀어 3주간 하느님과 나, 사제들과 나, 그리고 신자들과 나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말들을 어떻게 생활속에 표현할 것인지 궁리도 했다. 그 결과 얻어진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을 정리해서 온 몸 가득히 부여넣은 것이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목청을 가다듬으며 방법제시에 열을 토했던 외국 강사들(니콜라스, 모란, 헨드릭스, 오고르만, 갈레, 니포레다)의 성의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구상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진정 빈말은 아니었던가 보다. “정말 훌륭합니다. 주교님도 안계신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라고 한 외국강사들의 말씀! 하필 배주려 식욕이 반찬인 기막힌 시간만을 노려서 따르릉 전화칠 때문에 살짝 신경질 났어도 미쓰 「니포레다」의 “입과 입으로우”가 생각나 기쁜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몇가닥 머릿털로 환한 머리 갈추시던 노인 사제님들, 귀머거리 하얀푼이 아직도 쑥쓰러워 양귀비 염모제를 애용하시던 중년 사제님들, 쇠태 안경으로 한껏 노리내려 애쓰지만 그래도 팽팽한 얼굴의 젊은 사제님들, 모두가 한아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촌각을 아껴줄 때 영육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보다 넓은 일치를 요구해 온 전교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에서 또다시 “마음과 마음으로” “뒤편과 뒤편로우”라고 한 미쓰 「니포레다」의 말을 새겨두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우리는 “머리와 머리로, 입과 입으로,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 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아무튼 활명수처럼 적기적시에 피로를 씻어준 우리 교형들의 무수한 「빨랑카」—손수 빚은 떡이며 과일, 음료수 등등, 하나 하나에 온사제단의 눈시울이 뜨거웠다. 현금만도 270여만원,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보내준 기도의 영적 선물들—이들이 모두 우리의 「세미나」를 한결 풍요롭고 값지게 해줬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머리를 짚던 배려와 친절을 다한 말씀, 그리고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제단을 도와주신 상지회관 여러분과 3주간을 함께 협력해 주신 그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려 마지 않는다.

□ 광주의 합성!

어느 가슴에 메아리...

애초에 머리를 쥐어짚는 자여, 당신들은 민족의 붉은 장미요, 우리의 용감한 형제입니다. 심층으로부터 울려오는 님들의 외침이 내 안에 와서 사그라짐을 죄스럽게 생각하며, 아담과 여자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으려 결심합니다.

「광주사태」 1주기를 맞이하여 광주 대교구 사제단은 “학생, 시민들이 흘린 무고한 피와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기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을 깊이 애도하며 아직도 옥중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형제적 유대감을 갖는다”고 말하며, 사회적 양심과 예언자적 소명을 갖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사도.4, 20)했다.

또한 “광주사태는 불순분자의 책동을 받아 일어난 폭동이나 내란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폭력에 항거하여 일어난 80만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민중의거”라고 정의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8, 33)의 성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태의 과정과 그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민중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회, 불신과 거짓의 명예를 매지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면서 다음 사항을 주장했다.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광주사태로 인한 구속자의 무조건 석방.

—광주사태로 말미암은 사망자, 부상자, 실직자 및 제적학생들에 대한 정당 조치.

또한 ‘광주사태 관련가족 일동’은 희생자들의 영전에 고개숙여 애도를 표하면서, 살아있어도 신체의 한부분을 잃어버린 생기없는 사람들과,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중형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억울하게 고통 당함을 호소했다.

광주사태의 조속하고 타당한 조치를 호소하면서 “부본적인 사면이 아닌 전원의 석방”을 바랬으며 “구속자에 대한 사면이 지금의 정치현실에서 흥정대상이나 협상의 이용물이 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주기를 맞아(5월 18일) 광주 남동 성당에서는 오후 8시에 성직·수도자 250여명과 1,500여 명신도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광주사태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미사를 드렸고, 김성용 신부를 위시한 구속자들과 부상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광주 교구 사제단은 19일부터 가톨릭센터에 모여 구속자 석방을 위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었고, 21일에는 뜻있는 전담과 당국의 답변으로 단식을 중지했다.

아무튼, 민족의 아픔이 새로와지는 5월에 삼가 애도를 표하면서, 상처가 아물고 웃음면 사회가 되기를 염원한다.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맥그리거
MCGREGOR



버킹엄
Buckingham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율 리 안 나

□ 생화 · 각종화분 · 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 · 이 마리아

보신 · 보양 · 고단위 영양식품
토롱탕을 권합니다.

土 龍 의 집

전주시 경원동 1가 78-3
(민중서관 옆 송월타운 2층)
전화 ② 8 2 6 9
정 형 석(시메온)

교구 성가대 연합회 결성 인준

교구 참사회에서는 성가의 보급과 교회 음악의 보다 나은 연구 창달 및 자 본당의 성가대 육성을 도모하고 특히 교구단위 가톨릭 합창단의 조직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급변 새로이 발족된 교구 성가대 연합회(4월 26일 창립)를 당일자로 인준하고 그 지도신부에 사목국장(김봉희) 신부를 그리고 간사에 김태운 신부를 임명했다.

새 연합회에서는 곧이어 구제계획과 운영대책 수립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본당에서는 성가대 대표(대장, 지휘자, 반주자)들이 빠짐없이 참여, 대단원의 길을 모색토록 큰 관심을 쏟아주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이 단체의 발전을 빌어 드리자.

사목국장, 평협회장, 센타 총무 유럽 교회 시찰-26일 출국

본 교회와 결연을 맺게 된 독일 「마인즈」교구의 초청으로 평협 조성호 회장과 김영자 총무 그리고 사목국장 김봉희 신부가 26일 먼 유럽 여정에 오른다.

교구 대표로 선정된 이 세분은 6월 2일부터 마인즈에서 개최되는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공식일정이 끝나는 대로 독일 교회를 비롯 로마와 파리, 벨기 등 구라파 제 교회 시찰과 성지순례를 마치고 7월말경 귀국할 예정이다.

어려운 여진속에 강행군을 하게 될 김신부님 일행이 모쪼록 교구를 선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더욱 값지고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빌며 함께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사목국장 부제중의 모든 업무는 차장 김준호 신부님이 대행하게 될 것이다)

『生命의 農業』

가톨릭 농민회 전북 연합회에서는 농사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의 농업」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농약공해와 화학비료에 의한 피해를 최소로 줄여보자는 의지에서 쓰여진 책이다.

“죽음의 농법에서 삶의 농법”으로 라고 외친 저자(전자석<농민회 총무>)는 소비자들의 지나친 욕구(1등품)는 모두를 손상시킨다고 말하며, 공해의 실예를 들고 미생물을 이용한 농법과 소득을 올리는 방법, 지렁이 양식법에 이르기까지, 140면에 달하는 정성을 담았다.

저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사형제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란다.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교구청 사목국으로 문의하시고, 농민회 연합회에서 활발한 보급을 위해, 전주우체국 「우편대체저금」 구좌 9014598을 터 놓았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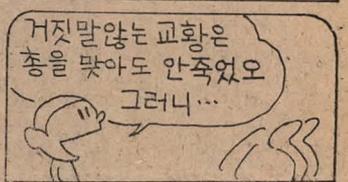
사제양성 후원성금 집계, 교구청으로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 2주간 동안 사제 양성을 위한 후원성금 적립에 모두가 정성을 쏟았다. 이제 본당으로 헌납하여 우리의 결실을 가름해 보자.

정성과 수고를 기울인 만큼 수확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합심하여 주신 본당과 교우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목자를 갈망하는 우리의 열성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 드리자.

※ 본당에서는 5월 25일<월>까지 교구청 사목국으로 송금 바랍니다.

요심이 (407) 김병오



보사부 허가제품 「토롱진액」 안 내

저희 입소에서는 금번 보사부 식품허가(제10호)를 받은 토롱진액을 형제 자매분에게 특별우대 공급코자 합니다.

당 「토롱진액」은 중정의 토롱탕에 비해 60배의 고농도로 저희 입소에서만 취급하는 허가식품임을 감안, 많은 애호를 양원합니다.

효능: 당뇨병, 간질환, 위장질환, 결핵, 고혈압, 저혈압, 부인병, 요통, 발육부진, 만성피로.

한국토롱연구소

이리직매장(2-2102)
(이리전채-제일극장 중간)
대표 유경옥(베로니카)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 종 싱크
백 곰 표 싱크 주방
(東南綜合 싱크 商社)
전주시 서농중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 9 0 0
金 樂 均(요셉)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 하겠습니다

한미주유소

전화 ⑤ 5 6 6 9 번
주 최남수(아폴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르네상스

비디오(V.T.R) 음악 감상실
음악 애호가들께 회소식!!
음악 가족을 모집합니다
전주 중앙동 1가 (낙원가구 앞)
신호루켈 삼익피아노 3층 ☎①764
배 세시리아 · 송 발라바(삼성)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
지
사
항

- 제 1 지구 회합 : 6월 1일 <월> 오전 11시 수류성당
- 제 4 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 5월 25일 <월> 6시 30분 서학동성당
- 대학생 화요 미사 : 5월 26일, 지향-광주사택 회생자를 위하여
- 제 2 지구 <군산·옥구> : 예수승천 합동미사 및 친선체육대회, 일사-5월 31일 10시 30분, 장소-군산대학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환
 ③3874번 보좌 신부 김희남
 보좌 신부 박인영
 사도 회장 김병환

1. 방ziger 3회 : 5월 31일 오후 2시 강당
 2. 견진성사 : 견진성사 받으실 분은 금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람 교리시간 안내 : 5월 27·28·29일, 6월 3·4·5일, 오전반 : 10시 30분 오후반 : 7시 30분
 3. 고등학생 체육대회 : 24일 오전 10시 해성중고운동장
 4. 주일학교 소풍 : 24일 오전 8시 상관 수원저 도시락 지참, 짜모님을 협조 바람
 5. 어린이 영세 : 29일 어머니 미사후
 6. 사제양성 돼지 저금통 : 이달말 다음주까지 빠짐없이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7. 성모의 밤 행사 안내 : 29일-일반신자, 30일-주일 학생, 31일-중·고·대학생 시간-오후 7시 30분, 화분과 꽃과 조를 봉헌 합시다
 사제양성 후원금 : 20일 현재 509,686원
- 지난주 봉헌금 : 453,915원

(노승동)

전화 ⑦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은혜의 밤 : 29일 <금>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를 받으신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성모의 밤 행사 : 30일 <토> 저녁 8시, 많은 참여를 바람, 각 단체 및 개인별 꽃과 조, 성시를 봉헌 바람
 3. 베소라 성서강의 : 매주 <화> 오후 7시 30분~9시 30분
 4. 수녀님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 매주 <월> 오후 2시
 5. 금주의 선결임기 : 구역의 사무일하원 전제
 6. 성령 기도회 : 매주 <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 및 청년들은 저녁 7시 30분 부터
 7. 아파트 공소건립 기금 : 감사합니다. 최 세페피아·구마리 막달레나·차 모니카·문 사비나·김 소피야 (각 10만원), 유 스테파노 (50만원), 은 마리아 (3만원)
 8.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34,235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유희
 보좌 신부 기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전례분과 위원 모임 : 공식 미사후 김미정, 안성기, 이철중, 김연성, 주영란
 2. 주일학교 교리 : 집에서 못다한 어린이들에 신앙교육을 맡겨 보세요, 일요일 오후 2시 교리, 3시 미사
 3. 예비자 교리 : 공식 미사후, 많은 예비자 안도 바람
 4. 진복회 단합대회 : 오늘 소양 송광사
 5. 반석회 : 26일 덕진공원 앞 동덕관-회비 2,000원
 6. 성모의 밤 행사 : 30일 저녁 목주, 기도서, 성가집 지참, 개인별 초봉헌, 단체별 화분꽃 봉헌
 7. 분당 야외미사 : 31일 오전 9시 분당 집합단체 출발 성가집, 기도서, 도시락 지참 바람
 8. 사제양성 저금통 : 오늘까지 봉헌 바람-사무실 접수
- 지난주 봉헌금 : 429,055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2. 성모의 밤 : 오늘 저녁 미사후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각 신심단체) 초봉헌-200원·400원(판대중) 지참물-목주 성가책
 3. 주일학교 성모의 밤 : 30일 저녁 미사후 (토요일)
 4. 봉헌금 : 미수가 없도록 봉헌 합시다
 5. 소지품 주의(여 교우들) : 분실사고가 종종 발생하오니 각자 주의하시기 바람
 6. 조성호 사도회장 출국 : 26일(독일·구라파)
- 지난주 봉헌금 : 399,33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혈수

1. 성모의 밤 행사 : 27일 <수> 1부 미사-7시 30분, 2부 성모의 밤 행사-8시, 지참물-(목주, 양초, 기도서) 각 신심단체에서 화분이나 꽃다발, 기도문 준비
 2. 울드레아 : 26일 <화> 저녁 8시
 3. 예수 승천야외 미사 : 다음주일 11시(5월 31일) 장소-구이 저수지 자자 도시락 지참
 4.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 강기호 ② 김낙균 신자들의 기도-박창춘
- 지난주 봉헌금 : 191,610원 교무금 : 98,000원

(술정이)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의 밤 행사 : 30일 밤 8시 30분 목주, 초지참 각 단체 화분-꽃 준비 바랍니다
 2. 예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 덕진 흥농탑 부근, 11시-미사, 신자들께서는 도시락을 준비바람
 3. 첫 영성체 교리 : 매일 오후 6시~7시까지 실시 하오니, 해당되는 아이들은 빠짐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양회 볼 소풍 : 5월 24일 운암 저수지
 5. 거년도 교무금 미수금 : 지난번 개별 통지에 의거 숙히 납부 바랍니다
 6. 돼지 저금통이 아직도 많은 숫자가 회수되지 않아오니, 반장님들께서는 곳 회수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7. 전례 담당 : 해설-이기호, 독서-① 정주복 ② 이기철, 기도-박해근
 8. 성모회 소풍 : 5월 26일 덕진 공원
- 지난주 봉헌금 : 331,02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환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수녀원 신축기금 : 성의를 보여주세요
 2. 교무금은 월납제 이오니 월별로 납부해 주세요
 3. 미사시간 변경 : 평일-아침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주일-저녁 7시 30분
 4. 주일학교 소풍 : 24일
 5. 다음주 전례담당 (31일)
 아침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 문치구 ② 최병래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 이덕수 ② 백종홍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 이진홍 ② 정동희
 6. 구역회합 일정 : 풍남동 2구-5월 26일 오후 2시(조미역씨택) 전동 1구-27일 오후 8시(안한승씨택) 전동 2구-27일 오후 2시(이준영씨택) 서원산동-28일 오전 10시(배한수씨택) 풍남동 3구-28일 오후 2시(이화생씨택) 중앙동-29일 오후 7시(안중기씨택) 동교 3구-29일 오후 2시(소정애씨택) 다가동-29일 오후 8시(백복주씨택)
 7. 성모의 밤 행사 : 31일 저녁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464,45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신부님들 연수회 동안 많은 영적 물질 선물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어린이 미사 : 주일 오후 3시로 변경, 교리는 미사후
 3. 유아세례 : 다음주 오후 3시 미사후
 4. 사제양성 사순절 돼지 저금통 : 오늘까지 내 주십시오
 5. 최 수녀님 영명축일 : 다음주 31일,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6.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시다 전교하기 위해 제일 좋은 메시지에 1가속 1인 가입합시다
 7. 오늘 11시와 12시에 두쌍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31,350원 교무금 : 97,500원